

명절에 기억할 것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처럼 유대인들도 기억하고 기념하며 모였던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한 후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지내던 그 날들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모든 곡식과 과일을 저장한 후에 드리는 절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추석과 가장 비슷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은 추석명절에 한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10절)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든 명절을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유대인들 역시 명절을 지키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남자는 성전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예배하기 위함이었으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역시 명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셨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명절이 되는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12절)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유대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누군가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있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임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을 맞이해 한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며,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합시다.

셋째, 입술에서 말씀이 나오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14절)

예수님도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단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속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명절에 모이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마련입니다. 힘이 되는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도 있지만, 갈등을 부추기는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입술이 이런 범죄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기경해야 합니다. 입술에 말씀을 담을 때 추석을 더 은혜롭게 보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모인 명절을 더 풍성히 보내기 위해 기억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입술에 말씀을 담아내어 이번 명절을 더 은혜롭게 보내는 우리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가정예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회목하라 살전 5:13



이 시간 추석을 맞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가 ----- 587장(통 306장) ----- 다 같 이

(1절)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2절)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3절)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들이고 /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4절)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 천군 천사 어울려 추수 찬송 부르리

기 도 ----- 가족대표

성경봉독 ----- 요한복음 7:10-14 ----- 인 도 자

10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11 명절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2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13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14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설 교 ----- 명절에 기억할 것 ----- 인 도 자

기 도 ----- 인 도 자

찬 송 가 ----- 301장(통 460장) ----- 다 같 이

(1절)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절) 주님 다시 뵈 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